

다발성 골수종, 왜 생기나



홍영선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내과

1. 다발성 골수종은 어떤 병입니까?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 골수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병으로 골수(우리 몸속에서 피를 만드는 공장) 속에 있는 B 림프구에서 유래된 형질세포에 생기는 암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이나 골육종 또는 전이성 골암 등의 병들과는 병의 경과나 증상, 치료방법 등이 다른 병이다. 형질세포는 정상적으로 면역 그로부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피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게 되면 암으로 변한 형질세포가 골수 안에서 계속 늘어나고, 그 늘어난 형질세포들은 완전하지 못한 면역 그로부린을 계속 만들어 피속으로 보내게 된다.

골수 안에 악성 형질세포가 차게 되면 정상 혈액세포의 생산은 방해를 받아서 환자에게는 빈혈이 생기고 전신적으로 기운이 빠지게 된다. 이 세포들이 전신적으로 뼈를 침범하여 녹이면 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허리나 팔·다리의 통증이 잘 생긴다. 또 불완전한 형태의 면역 그로부린이 계속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여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폐렴에 쉽게 걸리거나, 상처가 잘 굼거나, 한번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게 된다. 많이 만들어져 피속에 쌓인 면역 그로부린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여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을 일으키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콩팥기능이 나빠져서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암세포가 척추뼈에서 자라면서 덩어리를 형성하여 척추뼈 속을 지나가는 신경다발(척수)을 누르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소변이 마음대로 안나오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2. 다발성 골수종의 증상은 어떤 것입니까?

원인 모르게 전신적으로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러울 때, 다친 적도 없는데 팔·다리나 허리가 아플 때, 상처가 잘 낫고, 한번 생긴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때, 또는 이유없이 몸에 멍이 들거나, 붉은 반점 또는 점상 출혈이 생길 때, 반복해서 코피나 여성의 경우 자궁출혈이 있을 때에는 내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3. 왜 생기며 어떤 사람에게 잘 생깁니까?

다발성 골수종은 서양에서 인구 백만명중에서 서너명쯤 발생하고 주로 6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병의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일부 관여하여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가족내에서 발병 확률이 약간 높으며 특정한 종류의 ‘조직 적합성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직업적으로 농업, 식품가공업이나 석유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도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발성 골수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병은 서양에서 인구 백만명중에서 서너명쯤 발생하고 주로 6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병의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일부 관여하여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가족내에서 발병 확률이 약간 높으며 특정한 종류의 ‘조직 적합성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직업적으로 농업, 식품가공업이나 석유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도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어 내과 전문의에게 가면 먼저 몇 가지 혈액검사와 X-선 사진들을 찍게 된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경우에는 빈혈이 있거나 콩팥기능이 나빠지거나 피속에 칼슘이 증가하여 있는 것, 단백질이 증가하여 있는 것을 혈액검사를 통하여 알게 되고, X-선 사진에서는 몸 여러 곳의 뼈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소견을 보이는 데 특징적으로 두개골 사진에서 여러개의 원형의 뼈가 녹아있는 병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뼈에 침범되어 있는 병소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위의 검사소견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강력히 의심되면 골수검사(영당이 뼈속의 혈액세포를 주사기로 피를 뽑듯 뽑아서 보는 검사)와 혈액·소변의 단백질 전기영동이라는 검사들을 통하여 확진을 하게 되며, 이 골수검사와 단백질 전기영동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5.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다발성 골수종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신에 여러개의 병소가 동시에 생기는 병이므로, 그 치료도 전신에 효과가 미치도록 항암제를 주사하거나 먹는 방법으로 진단 즉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병이 뼈를 침범하여 통증이 심하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 또 척추에 형성된 암 덩어리가 척수를 눌러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상 생기는 경우에는 전신적 항암제 치료에 앞서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

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피속에 많이 늘어나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든 경우에는 '혈장 반출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는 기계를 통하여 피속의 비정상적 단백질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대개 하루에 3~4시간씩, 이틀에 한번 정도 하게 되고 힘이 드는 치료는 아니다. 항암제 치료는 한달에 한번씩 약 1년간 하게 되는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피속의 백혈구 생산이 줄어들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심하지는 않고,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치료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증상에 따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 피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

6. 다발성 골수종은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까?

항암제 치료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발성 골수종에 걸린 환자의 평균 수명은 1년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항암제 치료로 평균 수명이 3~4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5년 또는 10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완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7. 다발성 골수종은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약제가 이 병을 예방하여 준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평상시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의사를 찾아가도록 한다. ㉔

항암제 치료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발성 골수종에
걸린 환자의
평균수명은
1년정도였으나,
최근에는
항암제 치료로
평균수명이
3~4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